

# 제3호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타슈켄트 국립 동방대학	성명	Madaminova Dilrabo	학년	2	생년월일	1991년 2월 10일
			마타리노바 딜라보				

35

선물

100  
인생에 자주 나오는 단에 종에서 하  
나가 선물이다.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면  
사람들의 '어떤 선물을 사면 좋겠지?'  
같은 말을 듣고 또는 '어떤 선물을 받겠지?'  
란 말을 많이 들었다. 여러분 선물이  
무엇인가? 우리 이 말 자주 하고 자주  
사용한다. 그러나 이 것의 사감들이 어제  
어디엔 노길이나 생각을 줄 수 있는  
것을 잘 모른다. 선물에 대한 깊이  
생각하는데 그 것이 무언지 알 수 있다  
하고 생각한다. 제 생각에는 선물에 대해  
한번에 려거나 까지 의견들이 생겼다. 이들  
중에 첫 번째는 선물이 사람에게 기쁨  
带给 수 있는 것이다. 사람마다 종류  
다. 들리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여 줄  
수 있다. 예를 들면 우리 모두 '친구'사  
람이란 말을 안다. 그때 어떤 사람이  
처사람에서 꽃을 받고 그 꽃을 종  
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. 그 사람에게  
다른 경우에 꽃을 선물하면 그는  
처사람에게 대한다 생각하기 시작한다. 예전  
는 선물이 험복을 줄 수 있다. 제가  
그런 생각을 하고 차기 받고 싶은 선

300  
400  
500

# 제3회 중앙아시아 성균 학글 백일장

학교	타슈켄트 국립동방대학교	성명	<i>Madam inova Dilrabo</i> 마드리바 닐라보	학년	2	생년월일	1991년 2월 10일
----	--------------	----	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물이 대 한 대 달 을 아직도 안 밟 았 다.

감자기 31 가 학교에 서 공부 할 때 저에 거 .

그 뒤 21 일 씹 하 떴 던 말 을 기억 했 다.

그 뒤 21 일 씹 하 떴 던 말 을 기억 했 다.

그 뒤 21 일 씹 하 떴 던 말 을 기억 했 다.

그 뒤 21 일 씹 하 떴 던 말 을 기억 했 다.

그 뒤 21 일 씹 하 떴 던 말 을 기억 했 다.

그 뒤 21 일 씹 하 떴 던 말 을 기억 했 다.

그 뒤 21 일 씹 하 떴 던 말 을 기억 했 다.

그 뒤 21 일 씹 하 떴 던 말 을 기억 했 다.

그 뒤 21 일 씹 하 떴 던 말 을 기억 했 다.

그 뒤 21 일 씹 하 떴 던 말 을 기억 했 다.

100

200

300

400

500

# 제3호 |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박물장

학교	타이틀 국제 종합 대학교	성명	<i>Nodarinius Dianato</i>	학년	2	생년월일	1994년 02월 10일
----	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나	님	께	서	죽	여	던	진	가	느	겁	등	신	
물	을	걸	친	모	르	고	가	끔	은	그	들을	아	끼
알	고	살	고	있	다.	인	종	꽃	과	한	수	등	신
시	물	앞	이	살	수	이	다.	그	랑	기	만	거	감
느	끼	과	살	없이	여	대	줄	게	살	수	있	나	고
생	각	해	보	면	어	느	것	이	줄	은	선	물	인
침	개	알	수	있	다.	또	는	..	생	일	아	니	면
다	른	종	요	한	날	이	있	을	재	선	물	주	
어	야	되	면	꼭	2	사	랑	이	성	격	을	잘	
알	아	야	하	는	것	을	있	어	버	리	기	말	라고
말	하	고	싶	다.	왜	나	하	면	성	격	마	다	사
이	발	고	설	은	선	물	도	다	로	기	대	문	이
,	저	는	언	제	나	선	물	로	책	을	반	고	싶
,	하고	여	다	닐	때	우	리	도	서	간	에	있	는
도	는	책	을	읽	았	다.	선	물	이	비	싸	기	않
이	여	야	된	다.	그	사	람	에	개	갈	사	한	마
자	기	선	물	이	놓	으	면	얼	마	나	아	름	답
,	우	리	와	같	이	선	물	의	값	이	꼭	달	져
한	다	고	생	각	하	는	사	람	들	도	살	고	있
것	을	아	는	것	이	없	마	나	나	뿐	다.	작	은
선	물	이	라	도	마	음	께	께	2	선	물	을	만
선	물	해	야	한	다.	세	상	에	는	제	일	부	자
마	음	이	부	자	사	람	인	다.	그	래	서	비	싼
물	보	다	중	을	느	낌	이	남	겨	있는	작	은	선

# 제3회 중앙아시아 성균 학급 백일장

학교	타шу肯트 국립동방대학교	성명	<i>Madaminova Dirabo</i> 마다미노바 디라보	학년	2	생년월일	1991년 2월 10일
----	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은 선물이 데 풍을 선물이다. 제가 제  
일 아끼는 선물 풍에서 해나가 시간이  
다. 시간도 선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 
자기 인생에 늘은 기회를 놓칠 수  
있지.

마침내 선물이 우리 생각보다 다른  
것인지도 알았지. 이 때 부터 살피느라,  
건강과 시간을 꽂아야 된다. 왜냐하  
면 그들을 빼앗아 버리면 다시 잡고 가질  
수 없기 때문이다. 여러분 자기 빼앗

기 아끼는 것을 바란다.

선물을 가기 시작이 라고 생각하고  
300

400

500